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KARA NEWSLETTER

issue no. 001
MAY 2013

KARA NEWLETTER

Editor's message

레이스처럼 빠르고 화끈한 소통을 기대하며

2013 KARA 5 Keywords

연간 40만 관중 시대 눈앞, 레이스 문화 대중속으로

KARA Newsletter Interview

'F1 꿈나무' 서주원, 日 정상급 카트 대회 한국인 최초 우승
임채원, 한국인 첫 유러피안 F3 도전
형천욱, 트랙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터스포츠의 핵심요원



과거 기록 보유자를 찾습니다 //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우리 모터스포츠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기록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987년부터 1994년사이 국내 자동차경주와 관련된 경기 기록지나 경기 기록 관련 문건을 보관하고 계신 분을 찾습니다. 소중한 자료를 모터스포츠 발전에 활용코자 하오니 회원 및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변동식



레이스처럼 빠르고 화끈한 소통을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장 변동식입니다.

협회가 올 시즌부터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 창구의 한 방편으로 'KARA 뉴스레터'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협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회원들은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서로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협회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정책을 비롯한 국내의 모터스포츠 환경의 주요한 이슈들을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유용한 정보 공유의 틀로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올 시즌은 새로운 경기장인 인제오토테마파크가 등장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국제경기가 개최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보와 지식의 나눔을 통한 회원들의 의식 공유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뉴스레터가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내뿜는 긍정의 에너지를 한 데 모으는 힘을 갖게 되길 기원합니다.

우선 분기에 한 차례씩 이 소식지를 발간하지만 점차 내용을 강화하고 횟수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회원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RA NEWS LETTER

발행처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발행인 변동식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20층

Tel 02-424-2951

Homepage www.kara.or.kr

Facebook www.facebook.com/karamotorsports

제보 및 문의 kara@kara.or.kr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변동식 협회장)가 새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개막한 2013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5대 키워드를 선정했다.

KARA 선정 2013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5대 키워드

연간 40만
관중 시대 눈앞,
레이스 문화
대중속으로



3

전국 3개
서킷 시대

5월, 강원도 인제군에 새 자동차경주장인 '인제오토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1994년), 태백 레이싱파크^(2003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2010년)에 이은 역대 4번째 전용 경주장이다. 인제 오토테마파크는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 길이 4km의 중대형급이며 산악지형에 따른 다이내믹한 높낮이 차이, 트랙 대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관람 여건, 수도권 인구 접근 용이성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



6

사상 최대,
6개 국제 경기
유치

2013년에는 모터스포츠 국제 대회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전남 영암에 열리는 포물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필두로 신생 인제 스피드웨이에서 일본 슈퍼 포물러, 아시안 르망 시리즈, 투어링카 시리즈 인 아시아^(TCSA), 슈퍼 다이큐 등의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 현재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로 보고된 올 해 국제 행사만 6~7개 대회다. 이는 국내 모터스포츠 태동 이후 역대 최다이다.

CTCC/ FIA WORLD RALLY CHAMPIONSHIP

한국 모터스포츠의 해외 진출

2013년 대한민국 대표 모터스포츠 콘텐츠가 해외 무대로 나간다. 헬로비전 슈퍼레이스가 오는 6월 7~9일 중국 상하이 천마산 경기장에서 열리는 CTCC (China Touring Car Championship)에 참가한다. 슈퍼레이스는 간판 종목인 스톡카와 새 단장한 GT클래스 경주차 30여대를 대륙으로 보내 시리즈 득점에 포함되는 공식 레이스를 치른다. 슈퍼레이스의 상하이 경기는 중국 관영방송 CCTV를 통해 13억명에게 전달된다. 한편 현대자동차가 하반기 FIA 세계랠리선수권(FIA WORLD RALLY CHAMPIONSHIP) 최고 종목에 출전하게 되어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42

공인 경기 풍년, 연간 42 레이스

2013년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의 공인을 앞둔 모터스포츠 대회는 국제 대회 6경기, 국내 챔피언십 및 챌린지 4개 대회 34 경기, 단발성 이벤트 2개 경기 등 연간 38개 레이스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2년의 33 레이스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경기 종목도 다양해 기초 종목인 카트에서 친환경 자동차경주와 짐카나, 에코 랠리, 종합 챔피언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추게 된다.

400,000

자동차경주 40만 관중 시대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2013년 국내에서 열리는 모터스포츠 이벤트를 통틀어 연간 누적 관중이 40만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는 포몰러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 대회의 흥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예측한 수치다. 여기에 지난해 이미 경기당 5,000여명의 관중을 동원한 국내 대회의 성장세도 반영되었다. 목표인 40만 관중이 달성되면 모터스포츠는 국내 프로 스포츠 4대 종목의 하나가 된다.



KARA, 모터스포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발간

첨단 기계문명과 인간 능력의 한계가
만나는 모터스포츠,
0.001초를 다투는 경기를 완벽하게
움직이는 비밀이 공개된다!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유일한 바이블!”

프로 스포츠의 천국,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메이저리그 야구, 또는 NBA 농구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1위는 미식축구^(NFL)이며, 2위는 나스카^(NASCAR) 레이싱이다. 또한 미국에서 단일 경기로 최다 관중을 동원하는 이벤트 1위^(인디 500, 30만 명)부터 6위^(브리스톨/탈라데가 레이스 16만 명)가 모터스포츠 경기다. 전 세계 모터스포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포뮬러 1은 187개 나라에서 5억 명이 넘는 시청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0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포뮬러 1 코리아 그랑프리 해마다 국내 단일 스포츠 경기로 최다 관중 동원 기록을 세우고 있다.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를 자랑하는 한국에서도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개최되는 경기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관중의 입장을 넘어서 모터스포츠에 좀 더 깊숙하게 관여하고 싶은 이들, 그리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아닌, 모터스포츠 전반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경기 운영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를 원하는 팬들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전 세계 모터스포츠를 관할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의 한국 내 모터스포츠 관련 권한을 독점 위임 받아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관할하는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 제작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모터스포츠 운영 이론서가 <모터스포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이다.

MotorSport

모터스포츠의 개념 정리, 이 한 권으로 충분하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터스포츠 경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주역인 오피셜(공인 심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나의 모터스포츠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천여 명에 이르는 오피셜을 필요로 한다. 지식과 경험, 책임 의식을 가진 우수한 오피셜은 모터스포츠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러나 한국의 모터스포츠는 아직까지 실력과 책임 의식을 가진 오피셜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터스포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모터스포츠 오피셜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길라잡이로서 오피셜의 의미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입문서로서도 기획되었다. 모터스포츠를 정의하는 개념에서부터 모터스포츠를 분류하는 방법, 모터스포츠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각 주체들, 모터스포츠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의 종류와 의미, 모터스포츠가 열리는 장소인 경기장, 그리고 세계의 모터스포츠와 한국의 모터스포츠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터스포츠 전반에 관한 개념 정립과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모터스포츠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해설 모음집을 담고 있다. 오피셜만이 아니라 모터스포츠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선수 및 엔지니어들, 그리고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일반 팬들에게도 체계적인 개념 정립과 기본 지식을 익히는 데 부족함이 없는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역 오피셜의 지식과 경험, 이 한 권에 집약되어 있다

이 책을 집필한 필진은 모터스포츠 현장을 발로 뛰며 경험을 쌓아온 각 분야의 현역 오피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이 책 한 권에 한데 녹아 있는 것이다. 드넓은 경기장 곳곳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상황을 주시하고 1초 1초마다 현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무선 교신을 처리하면서 냉철한 판단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레이스 컨트롤, 바로 앞 코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능적인 감각으로 정확한 깃발 신호를 제시하여 드라이버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플래그 마샬, 사고 현장에서 분초를 다투는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조를 위해 현장으로 뛰어드는 이머전시 팀, 가장 긴장된 순간인 레이스 시작 과정의 1초 1초가 스के줄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리드 마샬…… 경기장의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레이스 컨트롤의 지휘에 따라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하게 수행하는 각 분야 오피셜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각자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은 무엇인지가 이 한 권에 충실하게 담겨 있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모터스포츠 경기를 초정밀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돌발적인 사고가 마치 미리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신속하고 말끔하게 처리되는 비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KARA, 모터스포츠 지식 나눔 캠페인 전개

KARA

MOTOR SPORTS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변동식 협회장)가 회원 및 자동차경주 팬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기증받아 이를 한 데 모으는 모터스포츠 지식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터스포츠 및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외 도서 및 논문, 자료집, 백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기증 대상이다. 이들 기증 자료들은 1차로 2013년 연말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사무실에 마련될 미니 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자동차경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정보 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기증자에게는 포물러원 한국 그랑프리 등 국내에서 열리는 자동차경주대회 입장권과 기념품등이 제공된다. 또 기증자 모두의 이름이 협회 홈페이지와 기증 도서의 표지에 명시된다. 협회 관계자는 “모터스포츠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캠페인을 통해 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자동차경주 100만 관중 시대를 향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며 “회원 및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일단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모터스포츠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전문 도서 발간 등 유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카트, 짐카나 등 기초 모터스포츠 풍년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계절의 여왕인 지난 5월 둘째 주말에 공인 기초 종목 자동차경주 대회가 잇따라 치뤄져 120여명의 참가자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12일에는 전남 영암 F1 카트 경기장에서 공인 대회인 전남도지사배 KBC 2013 코리아 카트 챔피언십^(이하 KKC) 2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KKC는 국내 카트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영암 카트장에서 경기를 치른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이 대회에는 125cc급 종목인 로탁스 맥스 등 4개 종목에 청소년 드라이버들을 중심으로 한 레이싱 꿈나무 38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대회는 전남도지사배로 열렸으며 카트 경기로는

이례적으로 KBC 방송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어서 전남 지역 모터스포츠 인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날인 5월11일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일반인 대상 자동차경주 대회인 코리아 짐카나 챌린지 개막전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주최하고 퍼슨스, DMA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무려 87명의 참가 신청을 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일반인 뿐 아니라 KARA 공인 오피셜과 드라이버, 연예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가해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짐카나는 S자 주행, 8자 주행 등 장애물로 만든 코스를 주파해 시간 기록을 재는 경기 방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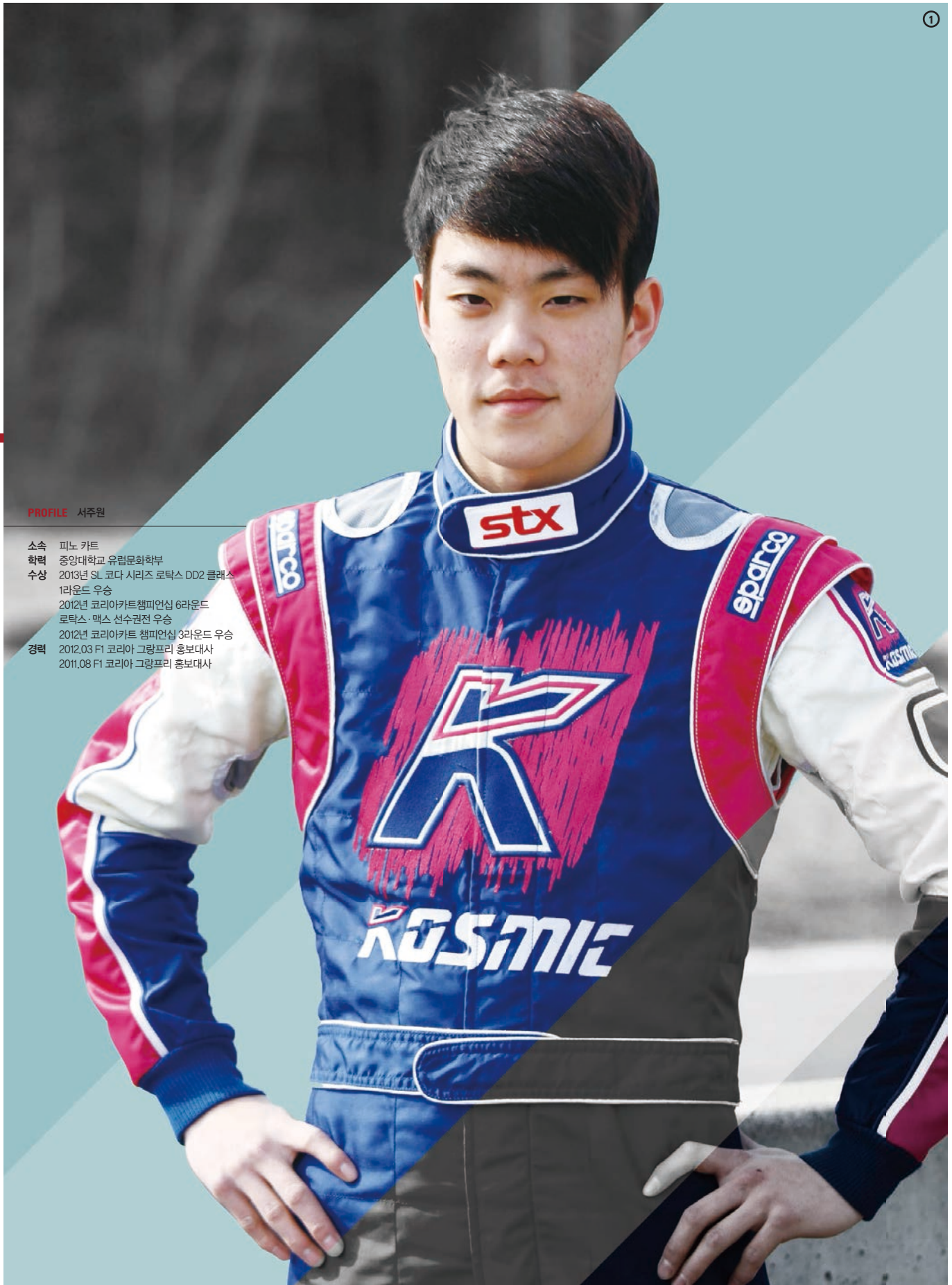
KART, GYMKHANA

카트, 짐카나 등 청소년과 아마추어들이 주로 참가하는 기초 모터스포츠 대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

말한다. 드라이빙 기술의 기초와 안전운전 요령을 함께 익힐 수 있어 모터스포츠의 입문 경기로 각광받고 있다. 프로그램 전문 선수도 있으나 자신의 승용차로 참가가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아마추어와 입문자들을 위한 무대로 알려져 있다. 이 경기 완주자에게는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의 공식 드라이버 라이선스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관계자는 “기초 종목 모터스포츠 대회의 흥행은 자동차경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풀뿌리 종목 육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ROFILE 서주원

- 소속 피노 카트
- 학력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 수상 2013년 SL 코다 시리즈 로타스 DD2 클래스 1라운드 우승
2012년 코리아카트챔피언십 6라운드 로타스·맥스 선수권전 우승
2012년 코리아카트 챔피언십 3라운드 우승
- 경력 2012.03 F1 코리아 그랑프리 홍보대사
2011.08 F1 코리아 그랑프리 홍보대사



‘F1 꿈나무’ 서주원, 日 정상급 카트 대회 한국인 최초 우승

SEOJUWON

국내 카트 역사상 16년만의 쾌거... 日 카트 최상위 종목 로탁스 DD2서 첫 우승

①

서주원(19, 중앙대 1년, 피노카트)이 한국인 최초로 일본 카트 최상위 클래스에서 우승했다.

②/③

서주원 드라이버는 지난 4월 7일 일본 나고야 코다 서킷(1주 1km)에서 열린 '2013 SL 코다 시리즈' 로탁스 DD2 클래스 1라운드에서 폴투윈(예선 1위, 결선 1위)을 기록했다.



②



③

'F1 꿈나무' 서주원(19, 중앙대 1년, 피노카트)이 한국인 최초로 모터스포츠 선진국 일본 카트 최상위 클래스에서 첫 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서 선수는 7일 일본 나고야 코다 서킷(1주 1km)에서 열린 정상급 카트 레이싱 '2013 SL 코다 시리즈' 로탁스 DD2 클래스 1라운드에서 폴투윈(예선 1위, 결선 1위)을 거두며 현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국내 카트 16년 역사상 한국 드라이버가 국제 카트 무대에서 우승을 거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 선수는 이날 오전 로탁스 DD2 클래스 1라운드에서 총 12바퀴를 9분37초817의 기록으로 2위와 1.168초 차이로 첫 승리를 거뒀다. 예선 1위로 출발 후 결승서 한때 2위로 밀렸지만 곧바로 역전에 성공하며 그대로 승리를 이어 간 것. 이번 일본 무대에서의 첫 우승은 불과 네 번째 도전만의 거둔 값진 성과다. 또한 해외 원정 승리로 최근 2~3년간 국내 카트챔피언십 최정상임을 확인한 후 일본에서도 통하는 정상급 선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 선수는 "일본 카트 무대에서 첫 우승을 거두게 돼 꿈만 같다. 매년 일본 선수들한테 지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겨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남은 경기서도 신바람나게 승리를 거둬 꼭 시리즈 챔피언을 거머쥐겠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서 선수가 첫 우승을 거둔 일본 나고야 코다 서킷에서 주최하는 SL 코다 시리즈는 일본의 유수 카트 시리즈 중 실력파들이 대거 참가하는 상급 카트 대회다. 로탁스 DD2 클래스는 배기량 125cc급 32마력을 내는 로탁스 엔진 중 가장 빠른 종목이다. 스티어링 시프트방식의 2단까지 기어변속이 가능한 미션 카트를 사용하며 타이어 또한 하이그립 타이어인 D3 공식 타이어를 쓴다. 세계적 수준의 드라이빙 실력을 닦을 수 있는 동시에 본격적인 포뮬러 레이스 준비에 앞서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 서 선수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남은 경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 시리즈 챔피언을 거머쥘 후 오는 11월 '카트 올림픽'이라 불리는 로탁스 그랜드 파이널 DD2 클래스에 참가할 계획이다. 2008년 카트에 입문한 서 선수는 2012년 코리아카트챔피언십 종합 2위에 올랐고 2010년 코리아카트챔피언십 시즌 챔피언을 거둬 '올해의 카트 드라이버상'에 이어 2011년 '올해의 글로벌 드라이버상'을 수상했다. 2011년 국제포뮬러 대회인 JK레이싱(구 포뮬러BMW) 개막전에 첫 출전해 최연소 선수로 경험을 쌓은 바 있다. 2011~2012년 2년연속 F1코리아그랑프리 홍보대사로 활약했다. 꼬마 포뮬러라 불리는 카트는 배기량 125cc급 엔진을 장착한 소형 경주용 자동차 대회이나 날카로운 엔진 배기음, 총알 같은 스피드, 아스팔트에 타이어 자국을 남기는 급제동과 코너링 기술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인 F1 대회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서울대 공대 출신 드라이버인 임채원이 올시즌 유러피안 F3 풀 시즌에 도전한다. 한국인 최초다. 임채원 드라이버는 프랑스 폴 리카르도 서킷에서 열린 2013년 이 대회 첫 경기에서 당당히 2위에 오르는 쾌거를 가두며 첫 단추를 끼었다.

임채원,

한국인
첫 유러피안
F3 도전

LYM
CHAEWON,



우승이 1차 목표지만
무리한 경기 운영으로 시리즈 전체
흐름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별한 일 없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16회의
레이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포디엄에 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PROFILE 임채원

서울대 공대 출신 드라이버인 임채원이 올시즌 유러피안 F3 풀 시즌에 도전한다. 한국인 최초다. 임채원 드라이버는 2013년 초반 테스트 무대 성격의 윈터 시리즈에 두 차례 참가해 모두 4위를 기록하면서 포디움을 노릴 만한 실력을 이미 입증했다.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각오는?

윈터 시리즈 2경기과 여러 경기장의 테스트를 통해 팀과의 신뢰를 쌓았다. 개인적으로는 기량을 100% 뽑지 못해 아쉬웠지만 F3 머신 및 유럽 서킷에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현재 최대의 집중력을 갖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 특히 현지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강도 높은 체력훈련을 매일 소화해 나가고 있다.

올 시즌 기대하는 성적은?

올 시즌 목표는 시리즈 상위권(3위)이었는데 첫 경기에서 포디엄에 올랐다. 우승이 1차 목표지만 무리한 경기 운영으로 시리즈 전체 흐름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별한 일 없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16회의 레이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포디엄에 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쟁 선수들과 비교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공학적인 이해력을 통해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듯 하다. 부드러운 주행 스타일이지만 올해는 더욱 과감하게 서킷을 공략하며 숨은 한계를 찾아내고 싶다. 단점이라면 부족한 경험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터득해 왔기 때문에 냉정하게 집중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어떠한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도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길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숙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불만 없이 잘 받아 들어가며 싸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해외 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다른 부분들은 개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폰서 문제는 별개인 것 같다. F3 정도급의 클래스가 되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테스트 비용, 경기 비용, 체류 비용 등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드라이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느 환경에 있던 불리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만은 끝없는 불만을 가져다 준다. 모터스포츠 선진국인 유럽과 일본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 프로 드라이버에 진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같은 수준의 노력과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확고한 목표, 강한 체력, 정신력과 의지, 고도의 집중력, 차량에 대한 이해도 등이 필요하다.

UN-OFFICIAL

형천욱,

트랙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터스포츠의
핵심요원

INTERVIEW

상용차회사 테스트 드라이버, 모터스포츠에서는 드라이버를 돕는 요원으로



자동차경주를 운영하는 주인공인 오피셜.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블런티어들이 오피셜의 주축을 이루는 만큼 다양한 직업과 전문분야에서 활동중인 인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코너는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의 주요한 자산인 오피셜들의 인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PROFILE 형천욱

나이: 36 | 거주지: 경기도 평택시
 오피셜 입문 연도: 2010년 | 라이선스 등급: C1 (2012년 기준)
 취미: 마살랑~, 드라이빙, 스포츠주행 | SNS 계정: 사용 안함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피셜 형천욱입니다. 현재 국내의 자동차 온로드 레이스 및 F1 그랑프리에서 코스오피셜(트랙사이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모터스포츠 오피셜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이전부터 모터스포츠를 직/간접적으로 접해왔었는데, 한국에서 F1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빅 이벤트에 참여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피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내경기도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F1이 데뷔전이 되어버렸네요^^

Q. 현재 소속된 오피셜 활동 분야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트랙 오피셜 소개)

A. 트랙사이드, 흔히 코스오피셜이라고도 합니다. 서킷 내에 있는 여러 포스트 중 한곳에 배치됩니다. 크게 3가지 임무가 있는데, 선수들에게 전후방 상황 및 경기 전체적인 상황을 깃발과 수신호로서 정보제공을 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담당구역에 대한 정리(오일, debris 등의 처리, 사고시 구난 보조, 코스정리 등등)를 하는 진행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반상황을 체크하고, 인시던트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는 판정업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레이스컨트롤과의 교신업무가 있습니다. 모든 파트가 그렇겠지만, 오피셜의 하나의 실수가 경기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많이 공부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도 필수이구요.

Q. 올해 오피셜로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A. 작년에는 시즌 전 목표를 미리 세워놓고, 대략 25경기 정도 참가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늘어난 회사업무로 인해 작년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친 심신을 힐링하기 위해서는 기회되는 대로 다녀야겠죠?^^ 모든 파트가 그렇겠지만, 오피셜의 하나의 실수가 경기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많이 공부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도 필수이구요. 올해는 이 부분을 보강시켜야 겠습니다.

Q. 트랙 오피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매 경기마다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베스트를 뽑는다면 포스트치프(색터마샬)로서 첫 경기였던 작년 F1대회를 떠올립니다. 처음 맡는 치프로서 대회가 열리기 수십일 전부터 팀원들을 구성하고, 서로를 알게 되고, 교육시키고, 손짓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팀웍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4일간의 대회를 치렀습니다. 많이 웃었고 보람도 느꼈고, 재미있게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한달 뒤 뒤돌아볼 때 저 멀리 지방에서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을 때, 정말 모두에게 고마웠습니다.

Q. 하시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직업 소개)

A. 완성차업체의 테스트드라이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또는 각 파츠들이 양산되기 이전에 개발단계에서 각종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저도 그 중 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직업이긴 한데, 음.. 거리를 돌아다니는 위장막 씌운 차량 스파이샷을 떠올리시면 되요.

Q. ㄹ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협회 회원에는 선수, 팀(원), 오피셜 등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칭이야 서로 다르겠지만 모두들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었으면 합니다. 즉, 파티를 많이 열어주세요^^

Q. 이 글을 읽는 협회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A. 항상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경기장은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탁 트인 야외에, 엔진이 내뿜는 멋진 음악이 있고, 타이어와 가솔린이 타는 아로마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옆치락뒤치락하는 드라마같은 스토리도 있구요. 몸이 골골할땐 이곳에서 힐링을 하세요. 친구들과 같이 오면 재밌습니다.~

Q. 이 코너 다음 회에 출연할 오피셜을 추천해 주신다면?

A. 사무국 백미경. 같이 경기를 한 게 몇번 되지는 않지만 볼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즐겁고 여유로워 보입니다.(코스에서 무전할때는 매우 다급하게 합니다^^.) 저처럼 입문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에게는 늘 부러워보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오피셜들에게도 긴장을 늦추면 안되겠지만 즐겁고 여유로운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Motorsports 지식나눔 캠페인

<http://www.kara.or.kr>

모터스포츠 도서관 건립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우수 기증자에 F1 그랑프리 등 국제 레이싱 대회 입장권 증정
기부자 이름을 책 표지 및 공식 홈페이지 기재하여 영원히 간직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모터스포츠 지식을 나누는 미니 도서관을 열고자 합니다. 모터스포츠 및 자동차와 관련된 도서나 자료를 기증하여 주시면 소중히 모아 회원 모두가 공유하는 정보 창고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기증 대상 품목 | 모터스포츠 및 자동차와 연관된 국내외 도서, 자료집, 논문, 백서, 국내외 잡지 등.
1권부터 양에 상관 없이 자유 기증 |
| 기증 방법 | - (02)424-2951로 전화해서서 기증 의사를 밝히시면 무료 택배기사를 계산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 아래의 협회 주소로 개별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
| 기증 기간 | 2013년 03월 11일부터 무기한 |
| 기증자 특전 | - 우수 기증자를 선발, F1 그랑프리 등 주요 국제 대회 입장권 1인 2매 증정 (2013년 03월 이내 기증자에 추가 특전 부여)
- 모든 기증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추후 발표 후 개별 배송)
- 기증 도서 표지에 기증자 성함 기재 스티커 부착
- KARA 공식 홈페이지 모터스포츠 지식나눔 캠페인 명예의 전당에 성함 등재
- 우수 기증자 선발해 2013년 모터스포츠인의 밤 행사 특설 테이블 초대 |
| 협회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20층 |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